

2018년 3월 20일, 남원읍 한남리 한남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정이슬) 조사.
고태행(여, 1942년생, 남원읍 한남리)

- 줄거리: 부모님을 일찍 여읜 형제가 있었다. 조금 모자란 형은 똑똑한 아우를 따라했지만 여전히 어리숙하게 행동했다.

[제보자] 옛날에 아들 성제하고 어멍이 살았어. 아방은 죽어불고. 이제 살다보니까 어멍이 죽은 거라. 옛날은 영장나면 동네 사람들 밥도 헹 멱이고, 떡도 헹 멱이고, 음식을 헹 멱여가지고. 지금은 식당에 강 맞형 점심도 조반도 다 맞형 회관에 강 하주만 옛날엔 다 집이서만 했잖아.

아방도 없고 아들 성제에 어멍하고 살젠 하난 가난했지. 없이 살거든. 그러니까 어멍은 죽어서 묻어야 뭐는디 성제들만 앉은 거야. 영장 나니까 팥죽을 췄어.

아시는 요망지고, 성은 멍청한 모양이라. 아시가 성보고

“팥죽 우로 가 조근조근 멱영 옵서.”

우로 멱이렌 허난 가정 강 사람들 대가리에 다 비운 거라. ‘웃어른 조근조근 멱영옵서.’ 한 건디 대가리에 비운 거라.

경 허난 이건 안 뭐겠다 헹 아시가 다 영장을 헷어. 형님. 그 보니까 형님이 그추룩 헹 못살거든.

“형님 이제랑 나 말대로 합서. 나 하는 대로만 합서.”

“경 허라.”

아시가. 상 잇이민 상 잇고. 걸으민 걷고. 막 다니는 거라. 아시만 따라 헷어. 아시만 따라 하난 아시는 키가 조금 크고 성은 키가 좀 작았어이. 게난 이렇게 가당 걸어갈 거 아니 아시가. 이렇게 해서 대멩이가 문에 딱 붙었어. 거시멍 아시가 똥을 딱 뀐었어. 성은 거시지 못할 거 아니. 기십내영 대멩이 거찌멍 똥 뀐거 아니. 딱 거찌멍 똥 뀐 똥을 바락이 쌌어. 경 허니까 성이 쌈 똥도 편 똥 참나 어찌 하오리까. 그런 얘기가 잇어. (웃음)

- 핵심어: 형, 아시(아우), 성제(형제), 아들, 어멍(어머니), 팥죽, 영장